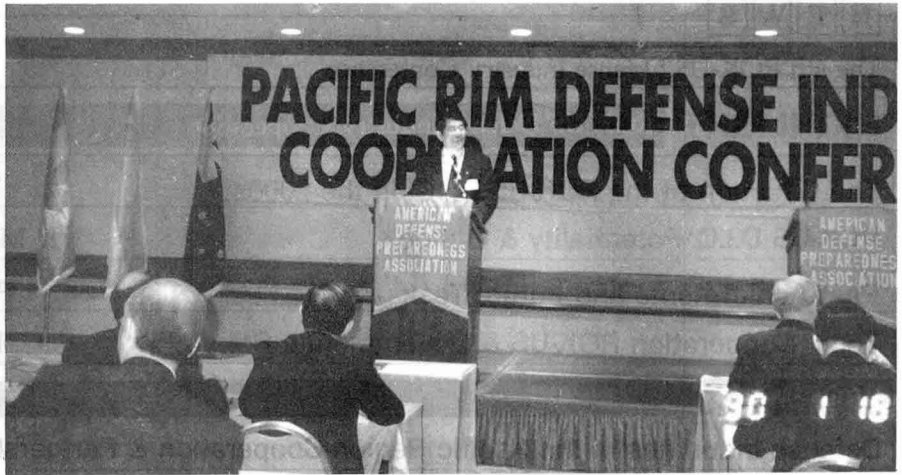


제4차 韓·美 방산회의 성황리에 개최

— 美 샌프란시스코 웨스틴 세인트프란시스 호텔에서 —

제4차 한·미 방산회의 및 태평양지역국가 방산협력회의(사진)가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양국업체대표 및 관련인사 2백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미국방위준비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회의는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회의기간중 한국측 참가업체 안내책자를 통합 전시하였다



회의기간중 출품된 Honeywell사의 전시코너

한 국방위산업진흥회(KDIA)와 미국방위준비협회(ADPA)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4차 한·미 방산회의가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웨스틴 세인트 프란시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업체 대표 및 정부등 관련기관 인사 2백4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회의 기간중 방산전시회가 병행하여 열렸다. 또한 태평양지역국가 방산협력회의가 미국방위준비협회 주최로 속행되었다.

본 회의가 끝난후 우리측 업계 대표 일행(44명)은 3개조로 나뉘어 코네티컷주 및 매사추세츠주 지역(시코스키社등 5개사), 펜실바니아주 지역(BMY社등 3개사), 플로리다주 지역(마틴 마리에타社등 5개사)의 주요 방산업체를 직접 견학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부간의 협력과 병행하여 업체대 업체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한·미 방산공동운영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시킬 것에 의견일치를 보였다.

李相薰 국방부장관 환영사

제4차 한·미 방산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韓國防衛産業振興會와 美國防衛準備協會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86년도 최초 모임을 가진 이후 지난 4년여 동안 양국 민간업체들의 노력으로 항공기분야 합작회사들이 설립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한·미 방산협력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한·미 방산협력의 증대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킴으로써,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는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더 나아가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에 이바지할수 있으리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이번 한·미 방산회의의 기간중에 태평양연안 국가들의 방산협력회의가 새로 개최됨은 21세기에 태평양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양국에게는 연안국가들과의 결속을 다질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번 회의가 그 어느해 보다도 가장 성공적인 회의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리차드 체니 美 국방부장관 환영사

미국방위준비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1990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제4차 한·미방산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한·미 양국간의 방산협력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는 한반도에 있어서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당기간 함께 일하여 왔습니다.

금년 제4차 회의는 이러한 기존관계를 더욱 보장하는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대 정부간의 노력을 위한 여건이 감소되어가는 이 때에

업체간의 협력과 역할이 미래에 우리 양국의 공동노력에 중요한 보탬이 될 것입니다. 1990년도 한·미 방산회의를 통하여 대성공을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柳續佑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환영사

존경하는 포드 美 국방부 부차관보님, 미국 방위준비협회 스키비 회장님 그리고 한·미 정부관계자 및 방산업체 대표여러분.

오늘, 90년 새해를 맞아 제4차 한·미 방산회의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 업체간의 협력을 위해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오신 미국 방산업체 대표들과 멀리 태평양을 건너 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한국방산업체의 대표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항구도시인 이곳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커다란 재앙에 태평양 건너편에 있던 우리 국민들도 경악과 비탄을 금치 못하였으나, 이번에 이곳에 와보니 짧은 기간에 거의 복구되어 불행중 다

一 笑 一 少 一 怒 一 老

이상과 현실

천신만고 끝에 결혼을 하게된 노처녀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는 절박감에서 우선 결혼 전반에 관한 사전지식을 얻기위해 서점을 찾았다.

「저 혹시 '결혼과 생활'에 관한 책이 어느 코너에 있는지요」

『예. 문학코너 바로 왼쪽입니다.』

「혼수에 관한 책은요」

『베스트셀러 코너예요』

「'사랑과 결혼'에 관한 책은요?」

『그런 공상소설류는 없습니다.』

행이라고 생각하며, 시련을 극복해가는 미국민의 위대한 저력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같은 곳에서 제4차 한·미 방산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더욱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1986년 3월 워싱턴에서 한·미 방산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미국방위준비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이 모임을 매년 개최하여 양국 방산업체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업체대 업체간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교대로 개최하여온 한·미 방산회의는 양국 정부와 업체대표들의 진지한 대화의 광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를 확인하는 기회였으며, 한·미간에 동반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공동협력의 좋은 본보기로서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의 한·미 방산회의는 내일 이곳에서 개최되는 태평양지역국가 방산협력회의와 연결되어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세계문화와 산업의 발달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을 무대로 하여 왔으며,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함께 그 중심은 대서양을 사이에 둔 서유럽과 北美지역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의 변화추세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번영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국가들은 이미 미국의 최대 교역국가들로서 유럽을 능가하고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한국과 미국이 이 지역에서 방위산업 협력을 보다 강력히 추진한다면, 이 지역의 공동번영은 물론 상호간의 안보이익에도 일치된다고 본인은 믿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로서도 향후 한국군이 소요로 하는, 보다 성능이 우수한 무기체계의 생산기

반을 구축하는등 새로운 변신이 요구되는 시점을 맞게 되어 오랜 우방인 미국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최근의 한국경제가 노사분규의 격화와 임금상승, 원화의 절상 등 내외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통적인 근로자의 근면성과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탄력을 조속히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내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오랜친구와 만나게 되는 것을 인생의 큰 즐거움 중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오랜 우방으로서 가장 친밀한 친구인 여러분과 다시 만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큰 기쁨이자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제4차 한·미 방산회의가 우리 모두에게 발전적이고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번 회의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양국 정부 당국과 스키비 회장을 비롯한 미국방위준비협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키비 미국방위준비협회장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4차 한·미 방산회의를 맞아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차회의도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되었듯이 다시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이 도시에서 자리를 같이 하게 됨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며, 특히 지난 일요일 풋볼시합은 이 도시가 지닌 용기와 결단력을 여실히 입증하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미 방산회의는 1986년에 처음 시작된 이래 양국 방산업체간 대화와 협력의 증진을 목표로 개최되어 왔습

니다. 본인은 양국이 서로의 안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입장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는 만큼 산업적인 준비태세 없이 군사적인 준비태세가 있을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부각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양국의 상호안보와 관련한 이런 면에서 본 회의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최근 공산주의의 종주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정치적인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일들이 단지 몇주만에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 및 국가경제의 세계화라는 면에서 이미 크게 진전된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변화에 비추어 볼때 본인은 군사적, 산업적인 준비능력은 물론 양국 정부 및 업체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협력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차 회의시와 같이 이번 회의에서도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며, 오늘도 이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의용 안내책자에는 체니 美 국방장관의 메시지가 실려있습니다. 체니장관은 정부대 정부의 노력을 위한 지원이 감소되어 감에 따라 업체간 협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즉 업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미래에는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유지하는데 서로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국경이 없고 국적도 없으므로 기술공유는 양국간 지속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외교정책상 안보면만 아니라 지적소유권등의 면에서 민감한 부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양국업체간에는 주목할 만한 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며, 하리장군의 조찬연설에서 이러한 예들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향후 이러한 사업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안보, 상호경제적 이익등이 우리가 이들 사업을 평가하는 공동분모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양국 업체는 자국의 경제 및 정치적인 문제에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의에서 상호교류를 통하여 여러분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느끼지 못하였을지도 모를 문제들을 민감하게 접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는 양국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미래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명한 연사들의 훌륭한 연설을 듣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류찬우 회장님 및 이 회의의 개최에 노력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요원과 양측 참석인사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활발한 의견교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一 笑 一 少 一 怒 一 老

“고생문이 흰해”

30살이 다된 딸의 결혼식을 노부부가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식이 거의 끝나갈무렵 부인이 남편을 쿡쿡 찌르며 말을 걸었다.

「여보, 우리 딸애의 꽃같은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마치 30년전의 제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당신 말이 맞구려. 고생문이 흰하게 열리는 줄도 모르고 그저 좋아하는 사위모습을 보니, 어찌 그리도 30년전의 내 모습을 빼닮았는지...』

제 4 차 韓·美 방산회의 합의문

1990년도 한·미 방산회의는 한·미 양국의 방위 산업 관계가 잘 협조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상호간에 더욱 긴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도 존재하고 있으나,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고 협력사업은 계속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양국은 방위산업은 계속하여 활발한 대화를 추진해야 하며, 양국 정부가 보호주의적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촉구하는 한편, 호혜적인 사업계획이 제기되고 시행되는 협력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협력을 위한 노력이 진전되기 위한 적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우선 관심을 기울이도록 양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결국 몇가지로 제한된 안건에 역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부터는 한·미 방산공동운영위원회가 협력사업에 대한 양국정부의 이견조정을 촉진하는 협조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아 방산회의의 가장 유익한 측면은 양국 참석자들의 상호교류였음에 유의하였다. 한·미 방산공동운영위원회는 지금부터 양국정부의 태도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특정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양국 공동운영위원회는 방위산업의 문제들이 정부수준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갖추어지도록 설명하기 위한 명분한 대정부 설득활동에 나서야 할 것임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성공을 통하여 이를 추후에 개최시기가 결정될 차기 한·미 방산회의의 주제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며, 공동운영위원회의 강화된 활동은 방산회의에 선행될 것이다.

공동운영위원회의 양국 위원들은 각측이 두가지 이내의 토의의제를 선정할 것이며, 이 작업은 1990년도 한·미 방산 본회의에서 제기된 다음 항목들을 기준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의 업계는 한국정부가 지적소유권을 준수하도록 노력함
- 미국의 업계는 미국정부가 상호구매 양해각서를 종결하도록 노력해야 함
- 한·미 업체간의 공동노력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함

• 양국업계는 기술의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한·미간 기술협력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자국 정부가 인식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함

한·미 방위산업 공동노력과 관련, 1990년도 한국의 국군의 날 경축행사에 미국의 우수 방산업체의 지도급 인사를 초청하는 문제가 제안되었다. 또한 장차의 한·미 방산회의에는 주요 단체의 중진급 인사들이 더 많이 참석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한·미간의 협력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요과제이다.

기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장차의 고려사항으로 제기하였다.

• 와인버거 前 미국 국방부장관과 前 미국방위준비협회장 마일리 대장의 한·미 방산협력을 지원한 공적을 인정

• 산업협력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모범을 보였거나 협력목표에 가장 현저한 공헌을 이룩한 인사에게 매년 시상을 실시

• 미국 연사들의 원고를 번역·발간하여 한국의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장차의 참고자료로 활용케 함

• 미국방위준비협회는 연례회원 목록을 <National Defense>誌에 게재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송부·배포토록 함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미국방위준비협회의 상호회원가입 문제는 오래된 숙제로 남아 있으며, 차기 미국방위준비협회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되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영향력있는 미국 업계의 중진급 인사가 한국의 업계대표들에게 연설할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차기 한·미 방산공동운영위원회는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1990년 9월말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1990년 한·미 방산회의의 공동의장이며 양국 방산공동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우리는 위와 같은 결론과 건의사항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1990년 1월 16일 샌프란시스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柳 俊 馨

미국방위준비협회
국제사업담당 회장

Howard M. Fish